한국청소년연구
*Studies on Korean Youth*
2016. Vol. 27. No. 3. pp. 5~30.
ISSN 1225-6336(Print) / 2288-8799(Online)
http://dx.doi.org/10.14816/sky.2016.27.3.5

# 청소년 도움행동으로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참여요인: 초·중·고등학생 세집단의 비교*

전신현** · 이경상***

**초 록**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도움행동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주목하고 그 원인들로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동기요인, 사회자본요인 및 상황기회요인들이 과연 어떻게 차별적인지, 그리고 그 원인들의 작용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전국의 청소년 7,052명을 조사한 결과 사회자본요인을 보면 조직사회자본이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모두에 있어서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모두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개인동기요인에서는 이기적 동기요인 중 도움시 즐거움이, 그리고 감정이입과 개인규범이 그 영향력이 유의미했다. 자원봉사의 경우 초등학생에서는 도움시 즐거움이, 고등학생에서는 감정이입과 개인규범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학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기부활동의 경우는 그와 상반되게 초등학생에서는 감정이입과 개인규범이, 그리고 고등학생에서는 도움시 즐거움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을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모두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은 기부를, 고등학생은 자원봉사를 더 하는 차이를 보였으며 학령별 내에서도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으나 경제수준과 종교는 기부활동에서만 어느 정도 중요했다. 상황기회요인을 보면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에서 중요했지만 기부에 있어서는 돕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지 그리고 돕고자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했지만 자원봉사에서는 그 외 접근성이나 편리성 등의 기회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기회요인은 학령별로도 차이를 보여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모두에서 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에게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주제어: 청소년, 자원봉사, 기부, 사회자본**

* 이 논문은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나눔활동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데이터와 연구결과를 재분석, 재작성한 것임.
** 고려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제1저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교신저자, lks1428@nypi.re.kr

# Ⅰ. 서 론

우리 주위에는 지역사회를 위해 기관, 시설, 단체를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불우이웃, 수재민 등을 위해 직접 혹은 자선단체를 통해 성금, 물품 등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같이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주는 행동을 도움행동(Helping Behavior)이라 부른다. 도움행동은 사회구성원들의 사회 공동체성을 강화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이다. 따라서 그동안 학자들은 이러한 도움행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움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왜 타인을 돕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Penner et al., 2005; Piliavin & Charng, 1990; Wilson & Musick, 1997; 전신현, 2011, 2015). 하지만 그동안 수행된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드물었다.

청소년들에게 도움행동은 공동체의식을 고양하고, 따뜻하고 성숙한 사회발전을 위해 바람직하고 필요한 행위이다(Hamilton & Fenzel, 1988; Nenga, 2012; 원미숙, 박혜숙, 2010). 최근 수년간 사회 전반적으로 양극화, 저신뢰화, 개인주의화 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청소년들의 도움행동을 통한 사회공동체성의 강화는 현재사회와 미래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 더욱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연구가 드물었던 청소년들의 도움행동 참여원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청소년 도움행동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도움행동에 참여하는 원인에 대해 경험적으로 파악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도움행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청소년 도움행동의 개념적 외연은 길안내와 같은 일상적 도움에서부터 정서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넓지만, 정책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소년 도움행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의 두 활동을 중심으로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청소년 도움행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 참여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일까? 기존의 도움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그 원인은 여러 수준과 방식으로 유형화되어 제시되어 왔다. 국외 연구에서 Midlarsky와 Kahana(1994)는 개인요인과 상황요인으로 분

류해서 살펴본 바가 있고, Dovido와 Penner(2001)는 생물학적, 동기적, 인지적, 사회과정적 요인으로 나눠 살펴 본 바가 있으며, Penner와 동료들(2005)은 수준별로 미시, 중간, 거시요인들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가 있다. 국내 연구에서 강철희와 김유나(2003)는 인구학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으로 나눠 살펴본 바가 있고, 전신현(2011)은 사회인구학적, 개인동기, 상황기회, 사회자본 요인으로, 유재연과 동료들(2015)은 개인수준과 지역수준으로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도움행동으로서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 참여의 원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동기요인, 사회자본요인, 그리고 상황기회요인으로 나누어 그 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로 한다(전신현, 2011). 기존 성인중심의 연구는 그 요인들의 일부만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이 연구에서는 위의 요인들을 포괄하여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며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참여원인을 파악함에 있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세 학령층 별로 나누어 그 원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연구도 부족했지만 특정 학령층에서의 연구도 부족하여 여기서는 세 학령층 별로 그 원인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다룰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세 학령층에 따라 도움행동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차별적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처럼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도움행동으로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참여의 원인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동기요인, 사회자본요인 및 상황기회요인으로 나눠 경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며, 특히 그 원인들의 작용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세 학령층 별로 어떻게 다른지, 학령층 별로 나눠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도움행동으로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여 현재와 미래사회의 성숙한 발전에 일정 정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Ⅱ. 이론적 논의: 도움행동의 원인에 관한 주요 논의들

## 1. 사회인구학적 요인

도움행동의 원인 중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소득, 종교 등이 있다(Drollinger & Johnson, 1995; Einolf, 2011; Penner et al., 2005; Regnerus et al., 1998; Wilson, 2000; 전신현, 2011).

첫째, 성에 대해서는, 여성의 성역할이 남성보다 양육, 보살핌 등과 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남을 돕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더 많다(Eagly & Crowley, 1986; Einolf, 2011; Wilson, 2000). 국내 성인대상 연구에서도 자원봉사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참여하며(이용관, 2015), 기부의 경우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있다(유재연 외, 2015). 하지만 최근 강철희와 동료들(2015)은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에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둘째, 연령에 대해서는, 기부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하고(Drollinger & Johnson, 1995), 자원봉사는 성인기에 들어서 줄어들다가 중년기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Musick & Wilson, 2008). 국내 성인대상 연구에서의 결과는 일관적이지 않아, 강철희와 동료들(2015)은 연령이 높을수록 기부에서는 다소 약하게, 자원봉사에서는 크게 유의미하게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오히려 연령이 적을수록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고(이용관, 2015), 그보다는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에서 연령이 주요 변인은 아니라는 연구가 더 많다(김성경, 2007; 유재연 외, 2015; 주성수, 2014).

셋째, 교육수준과 소득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Penner et al., 2005), 소득이 높을수록 자원봉사 및 기부 참여 등 남을 돕는 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mith, 1994). 국내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소득이 자원봉사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도 있지만(이용관, 2015) 그 영향이 대체로 낮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성경, 2007). 기부에서는 소득과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가 있지만(강철희 외, 2015; 주성수, 2014; 홍은진, 2005) 유재연(2015)의 기부활동 연구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중요하지 않았고 교육수준이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제시해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넷째, 종교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앞의 요인들과는 달리 대체로 일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종교가 있는 사람이 남을 돕게 되며(Lee et al., 1999; Regnerus et al., 1998), 국내 자원봉사나 기부 연구의 경우에서도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강철희 외, 2015; 유재연 외, 2015; 이용관, 2015; 홍은진, 2005).

## 2. 개인동기요인

도움행동의 원인 중 개인동기 요인에는 이기적 동기, 이타적 동기, 규범적 동기의 세 가지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Batson et al., 1981; Dovidio et al., 2006; Schwartz, 1977; 전신현, 2011, 2015).

첫째, 이기적 동기를 주장하는 손실-보상 모델 설명(Piliavin et al., 1981)에서는 도움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도움행동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손실보다 이익이 더 많을 때 도움행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즉, 도움행동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물질적 보상, 사회적 명예, 주위 사람의 칭찬, 즐거움, 자부심 등)이 많고 생길 수 있는 손실(시간과 노력 소모, 물질적 비용 소모, 신체적 위험 등)이 적어야 하고, 도움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손실(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 주위 사람들의 비난)이 적어야 도움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Dovidio et al., 1991; 전신현, 2011, 2015).

둘째, 이타적 동기를 주장하는 설명에서는 도움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려운 곤경에 처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감정이입 등을 통한 이타적 동기에서 도움행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Batson et al., 1981; Eisenberg & Miller, 1987; Schroeder et al., 1988; 전신현, 1998).

셋째, 규범적 동기를 주장하는 설명에서는 도움행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남을 돕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도적적 의무감과 같은 규범적 동기에서 도움행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Piliavin & Charng, 1990; Sargeant, 1999; Schwartz, 1977).

국내 연구에서 홍은진(2005)은 성인대상의 기부활동 연구에서 이기적 동기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규범요인을 포함한 이타적 동기가 $p<.05$수준에서 유의미했음을 제시했고, 김주원과 김용준(2008)의 자선단체기부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제시했다. 김현진과 이민창(2012)은 성인 자원봉사자 대상 자원봉사 지속의지에 관한 연구에서 이기

적, 합리적 동기가 다소 우세했으나 이타적, 정서적 동기 및 규범적 동기도 유의미한 요인이었음을 제시했다. 전신현(2015)은 대학생 대상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도움의 비교 연구에서 이기적 동기는 오프라인에서는 중요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 돕는다는 결과를 제시해 이기적 동기가 중요했고, 반면 감정이입의 이타적 동기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도움행동에서, 그리고 개인규범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중요한 요인인 것을 제시했다.

그동안의 연구는 성인대상이 많았고 청소년대상 연구는 매우 부족했지만 이승미와 이경님(2008)은 중고등학생 대상의 친사회적 도움행동의 연구에서 남녀 청소년 모두 감정이입의 공감력이 주요 설명요인임을 제시했다. 송민경과 유현미(2013)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에서 자원봉사가 자기개발이나 성장에 이롭기 때문이라는 이기적 동기는 중요하지 않고 이타적 동기가 $p$<.05수준에서 다소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한편 이창식과 송국범(2013)의 청소년 기부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부에 대해 갖는 태도와 규범이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기도 했다.

## 3. 사회자본요인

도움행동의 세 번째 원인으로는 조직구성원간의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과 같은 사회자본 요인을 들 수 있다(Putnam, 2002; 전신현, 2011).

사회자본론적 설명에서는 개인특성, 개인동기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조직구성원과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인 요인에 관심을 갖는데, Wilson과 Musick(1997)이 사회 구성원들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상호신뢰감이 자원봉사 참여에 중요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듯이 도움행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직내 구성원간의 관계, 조직내 성원감 등과 같은 사회자본이 높을수록 도움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Brown & Ferris, 2007; Eckstein, 2001; Putnam, 2002).

국내 연구에서 홍성모와 동료(2011)는 사회자본 요인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이 지역자원봉사와 관련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 모두 자선단체의 조직에 참여하거나 회원활동과 관련이 높다는 결과도 있다(주성수, 2014). 강철희와 동료(2015)는 사회자본을 사회전반에 대해 갖는 신뢰나 호혜성, 규범으로 접근해 자원봉사와 기부에 각각 적용하기도 했는데, 일반적 신뢰감

은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에서 중요하지 않았지만 일반적 호혜성은 자원봉사에, 그리고 규범은 기부에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제시했다.

조직에 참여하고 구성원 간에 신뢰가 형성되면 역할정체성이론의 주장과 같이(Lee et al., 1999; Piliavin & Callero, 1991; 전신현, 2015) 그 성원의 일원으로서 남을 돕는 역할의 자아정체성이 발전되어 도움행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자원봉사자의 연구(Piliavin et al., 2002)에서 역할정체성은 중요한 설명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국내연구에서도 자원봉사 참여에 자원봉사자로서의 정체성이(김성경, 2007, 2009), 자선단체조직과 관련한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제시되었다(김주원, 김용준, 2008).

## 4. 상황기회요인

도움행동의 원인 중 상황기회 요인에는 주변인 인지, 수혜자 특성, 그 외의 도움기회의 요인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Dovidio, 1984; Latane & Darley, 1968; 전신현, 2011).

첫째, 도움행위자의 특성이나 동기보다는 도울 때의 주변적 상황이 어떤지가 도움의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 Latane과 Darley(1968)는 자신들의 연구에서 위급상황에서 주변인들이 많을수록 도움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줄어들고 반대로 자신이 유일한 목격자라면 도움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변인 효과를 도움행동 참여의 중요한 상황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즉, 주변인들이 많을수록 책임의 분산으로 인해, 주변인들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함으로 인해, 도움행동에 참여함으로 남들에게 주목을 받거나 잘못 평가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남을 돕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Latane & Darley, 1968; 전신현, 2011). 이처럼 누군가 도울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는 도움행동 참여의 설명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도움을 받는 수혜자의 특성이 도움행동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수혜자의 신뢰성, 수혜자의 도움의 필요성 및 긴급성, 수혜자와 도움행위자와의 유사성이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Dovidio, 1984; 전신현, 2011). 그동안의 국내 연구에서 봉사나 기부하려고 하는 기관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에서 그것이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이 제시되었다

(강철희, 2003; 김성경, 2007; 홍은진, 2005). 이창식과 송국범(2013)의 청소년의 기부행동 연구에서도 기부할 대상의 기관신뢰도의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그 영향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변인 인지나 수혜자 특성이외의 상황기회 요인으로 자원봉사 및 기부에 있어서 지리적 거리라든지, 모금함의 설치 등과 같은 접근의 편리성이나 기회 등이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상황요인으로 중요할 수 있다. 전신현(2011)은 온라인 도움행동의 설명에서 도움기회가 얼마나 되는지가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결과를 제시했는데, 송민경과 유현미(2013)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연구에서는 자원봉사 접근성이나 편리성과 같은 요인은 중요하지 않게 나타났다.

# Ⅲ. 연구문제와 방법

## 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대표적 도움행동인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두 가지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동기요인, 사회자본요인, 그리고 상황기회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 성, 연령, 경제수준, 종교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개인동기요인은 이기적 동기, 이타적 동기, 규범적 동기로 나누어 살펴보는데, 이기적 동기로는 도움으로 인한 이득(주위의 칭찬, 개인적 즐거움)이외에 도움으로 인한 손실(시간, 비용)과 돕지 않았을 때의 손실(죄책감, 주위의 비난)의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타적 동기로는 감정이입의 작용을, 그리고 규범적 동기로는 도움에 대한 개인규범을 다룰 것이다. 셋째, 사회자본요인으로는 사회네트워크나 지역사회에 대해 갖는 신뢰와 같은 요인보다는 자원봉사나 기부와 관련된 조직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그 조직구성원들과의 친밀도 및 상호성, 조직성원으로서 역할정체성을 다루기로 한다. 넷째, 상황기회요인으로는 주변인 인지와 도움수혜자의 신뢰성, 그리고 전반적인 도움기회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위의 요인들을 청소년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적용함에 있어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의 세 학령별로 비교하면서 살펴볼 것이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경우 성인대상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원봉사나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유재연 외, 2015; 이용관, 2015), 연령에 따른 차이는 일관되지 않지만 대체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제시되는데(김성경, 2007; 유재연 외, 2015; 주성수, 2014), 청소년대상 연구에서는 어떤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기존 성인연구에서 소득은 대체로 기부에서만 중요했다는 점에서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기부활동이 높은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종교는 기존 성인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제시되는데 청소년의 경우 세 연령별로 그 영향력이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동기요인의 경우는 기존 성인중심의 연구에서 볼 때 대체로 이기적 동기의 영향력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그보다는 이타적 동기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주원, 김용준, 2008; 홍은진, 2005). 청소년대상의 경우도 성인과 같은 결과가 있어(송민경, 유현미, 2013) 이기적 동기보다는 이타적 동기가 우세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세 학령별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규범의 영향력도 청소년의 기부 연구에서 나타나(이창식, 송국범, 2013)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 예상되지만 세 학령별로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자원봉사나 기부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제시되는데(Brown & Ferris, 2007; 김주원, 김용준, 2008; 주성수, 2014), 청소년의 경우도 그 영향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의식이라는 요인을 자원봉사활동에 적용한 연구에서는(송민경, 유현미, 2013) 그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고 기부활동에 적용한 연구(이창식, 송국범, 2013)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공동체의식이라는 큰 요인보다는 사회조직차원에서 자선단체 등 도움관련 조직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지의 여부와 도움관련 조직구성원들간의 친밀도나 조직 내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상호성, 그리고 조직 내 구성원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정체성과 같은 사회자본요인이 자원봉사나 기부활동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존 연구에서 상황기회요인의 영향은 성인대상 연구(김성경, 2007; 홍은진, 2005)에서나 청소년대상 연구(송민경, 유현미, 2013; 이창식, 송국범, 2013)에서 그 영향력이 미약하였다. 또한 자원봉사나 기부는 위기상황과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개인동기요인이나 사회자본요인과 비교해서 상황기회요인이 크게 작

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요인들이 세 학령별로 어떻게 달리 작용할지 살펴보기로 한다.

##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2015년 5월 현재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과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2014년 한국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의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5년 5-7월 사이에 리서치회사의 훈련된 조사원들이 해당학교를 방문하고 청소년들이 자기기입을 하는 집단면접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7,052명이 조사되었다. 최종조사된 데이터는 데이터클리닝 과정을 거쳤으며 전문가에 의해 표준화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하였다(강현철, 2015).

이 연구의 종속변수로는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이 측정되었다. 우선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학교교육과정으로 계획된 봉사활동과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두 가지로 나눠 측정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더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에 가깝다고 생각되어 후자의 경우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계획한 봉사활동의 세부 문항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항목 중 도움행동의 개념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지난 1년간의 교내봉사활동(학습부진,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가정 학생 돕기 등)과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복지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돕기/불우이웃 돕기/고아원, 양로원, 군부대에서의 위문활동/재해구호, 국제협력과 난민구호활동 등)으로 1회 이상 참여무유로 측정된 것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기부활동의 경우는 지난 1년간의 현금, 현물, 포인트 기부의 재산기부(종교기관에서의 기부는 제외)중 1회 이상 참여무유로 측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로는 사회인구학적 요인들, 개인동기요인들, 사회자본요인, 상황기회요인들이 측정되었다. 사회인구학적 요인들로는 응답자의 성, 학년, 주관적 경제수준, 종교를 사용하였다. 성은 남자인지 여자인지의 응답(남성더미)을 통해, 학년은 초·중·고 세집단별로 세 개의 학년이 있어 현재의 학년(초4=1～고3=9)을 사용하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가정형편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매우 못 산다”에서 “매우 잘 산다”에 이르는 7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종교는 종교의 유무와 구체적 종교를

알아보았는데 최종적으로 종교의 유무(종교무유더미)를 사용하였다.

개인동기요인으로 우선 이기적 동기의 경우 도움의 이득과 손실을 측정하였는데(Dovidio et al., 1991), 이득은 “남을 도우면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평판이 좋아질 것이다”, “남을 도우면 나 자신이 뿌듯함을 느끼거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로 질문하였다. 손실의 경우 도울 때의 손실을 위해 “남을 도울 때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야 될 것 같다”와 “남을 도울 때 여러 비용이 부담이 될 것 같다”로 질문하였고, 돕지 않았을 때의 손실을 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죄책감이 들 것 같다”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돕지 않았을 때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같다”로 질문하였다. 그리고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들을 모두 합산하여 이기적 동기로 사용하기에는 신뢰도가 낮았고, 또한 이득과 손실로 나누어 변인을 생성하기에도 신뢰도가 낮아 각각의 질문인 주위칭찬, 즐거움, 시간노력, 비용, 죄책감, 주위비난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이타적 동기인 감정이입은 그 개념에 근거하여 어렵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평소 반응을 통해 알아보았다(Eisenberg & Fabes, 1991; 전신현, 1998). 이를 위해 “어렵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내가 그런 것과 같이 가슴이 아프다”,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다”,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의 세 문항의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후 세 문항을 합한 후 3으로 나눠 분석에 활용하였다(Alpha=.856).

개인규범은 남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내면화된 신념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처럼(Piliavin & Libby, 1986; Schwartz, 1977) “어렵고 곤경에 처한 사람들은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문항을 사용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회자본요인으로는 지난 1년간 개인이 자원봉사나 기부관련 조직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후, 조직구성원들간의 친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원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였다”로 질문하고, 조직에서의 도움의 상호호혜성을 측정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원들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로,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로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토록 하였다(도움조직에서 활동한 경험이 없는 경우는 0으로 코딩). 이들 친밀도, 상호호혜성, 정체성을 각각 사회자본요인의 변수들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들 문항간의 상관관계가 높고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어 여기에서는 이들 세 문항들을 합한 후 3으로 나눠 도움조직사회자본이라는 변수로 사용하였다(Alpha=.983).

상황기회요인에서는 주변인 인지, 수혜자 신뢰, 도움기회 인지를 사용하였다. 우선 도움행동시의 주변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내가 아니어도 내가 아는 다른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울 것이다"를 질문하고, 수혜자의 신뢰성을 측정하기 위해 "나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힘들다"(역재부호화후 분석)를 질문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도움기회 인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나는 평소에 남을 도울 기회가 많은 편이다"를 질문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8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인 지난 1년간의 자원봉사활동과 기부활동의 1회 이상 참여무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해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Ⅳ. 분석결과

표 1은 이 연구의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 중 남학생은 3,676명으로 전체의 52.1%였고, 여학생은 3,376명으로 47.9%였다. 초·중·고등학생에서 남녀 비율은 거의 유사했다. 학년은 초등학생 4학년부터 고등학생 3학년까지 1~9학년에서 평균이 5.30학년이었고, 초·중·고 1-3학년으로 재환산 결과 평균이 초 2.04, 중 2.07, 고 1.97로 거의 모두 2학년 전후였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1-7범위에서 평균값이 4.460이었고, 초등학생이 4.820으로 중학생 4.450, 고등학생 4.190보다 더 높았다. 종교를 갖고 있는 학생은 3,078명으로 전체의 44.2%였고, 초등학생이 전체의 51.5%로, 중학생 42.9%, 고등학생 39.8%보다 더 많았다.

그 외 모든 독립변인의 경우 여러 문항을 합산한 경우도 1~5점으로 환산하여 그

결과를 제시했는데, 개인동기요인의 경우 우선 이기적 동기요인에 해당하는 이득요인으로 도움시 주위의 칭찬은 평균값이 3.465로 중간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고, 도움시 즐거움의 경우는 평균값이 3.922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움시 이득의 경우는 초등학생에서 점수가 더 높았으며,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다.

도움시 손실의 경우 시간손실에서는 평균값이 3.463으로 다소 높았고, 금전 및 여타 비용은 2.862로 다소 낮았다. 도움시 손실의 요인들은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손실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을 돕지 않았을 때의 손실로 돕지 않았을 때의 죄책감의 평균값은 3.299이었고, 돕지 않았을 때 주위 비난은 2.863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이 또한 초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타적 동기요인으로 감정이입은 평균값이 3.679로 높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간에 큰 차이는 없었으나 고등학생의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규범적 동기요인으로 개인규범의 경우 평균값이 4.083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초등학생의 점수가 가장 높았고,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요인의 경우 도움조직사회자본은 도움관련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부호화하였는데 0~5점의 점수범위에서 많은 학생들이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그 평균값이 1.382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이 가장 점수가 높았고, 초등학생, 중학생 순이었다.

상황기회요인에서는 주위에 도울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주변인 인지는 평균값이 3.327로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정도였고, 초등학생이 그 점수에서 다소 더 높았고, 그 다음이 중학생, 고등학생 순이었다. 도움 수혜자에 대한 신뢰는 평균값이 3.251로 초등학생이 그 점수에서 약간 더 높았고, 그 다음이 고등학생, 중학생 순이었다. 도움의 기회에 대한 인지는 평균값이 2.876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의 도움기회 인지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경험을 살펴보면, 우선 자원봉사의 경우 학교 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자발적 봉사의 경험자는 1,072명으로 전체의 15.2%이었고, 지역사회봉사 경험자는 2,006명으로 28.5%로 더 많았으며 전체 자원봉사 경험자는 2,565명으로 36.5%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봉사의 경우 중학생이 다소 더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사회봉사의 경우는 초등학생의 16.1%,

중학생의 31.8%, 고등학생의 34.8%가 경험하여 고등학생의 경험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전체 자원봉사의 경우도 초등학생은 474명 24.0%, 중학생은 997명 40.8%, 그리고 고등학생은 1,094명 41.9%가 자원봉사의 경험이 있어 고등학생 경험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적 통계 분석결과(빈도(%), 평균)**

| | | 전체 | 초 | 중 | 고 |
|---|---|---|---|---|---|
| | | 7052 | 1980 | 2449 | 2623 |
| 사회인구학적 특성 | 성 남성 | 3,676(52.1) | 1,029(52.0) | 1,278(52.2) | 1,368(52.1) |
| | 성 여성 | 3,376(47.9) | 951(48.0) | 1,170(47.8) | 1,255(47.9) |
| | 학년 | 5.300 | 2.040 | 5.070<br>(2.070) | 7.970<br>(1.970) |
| | 경제수준 | 4.460 | 4.820 | 4.450 | 4.190 |
| | 종교 없음 | 3,888(55.8) | 949(48.5) | 1,384(57.1) | 1,556(60.2) |
| | 종교 있음 | 3,078(44.2) | 1,007(51.5) | 1,041(42.9) | 1,030(39.8) |
| 개인동기 요인 | 주위칭찬 | 3.465 | 3.580 | 3.376 | 3.461 |
| | 즐거움 | 3.922 | 4.070 | 3.824 | 3.901 |
| | 시간손실 | 3.463 | 3.373 | 3.483 | 3.512 |
| | 비용 | 2.862 | 2.710 | 2.881 | 2.959 |
| | 죄책감 | 3.299 | 3.110 | 3.311 | 3.432 |
| | 주위비난 | 2.863 | 2.661 | 2.895 | 2.986 |
| | 감정이입 | 3.679 | 3.660 | 3.650 | 3.721 |
| | 개인규범 | 4.083 | 4.159 | 4.082 | 4.025 |
| 사회자본 요인 | 도움조직 사회자본 | 1.382 | 1.357 | 1.347 | 1.434 |
| 상황기회 요인 | 주변인인지 | 3.327 | 3.409 | 3.327 | 3.265 |
| | 수혜자신뢰 | 3.251 | 3.332 | 3.199 | 3.237 |
| | 기회인지 | 2.876 | 2.890 | 2.902 | 2.842 |
| 자원봉사 경험자 | 학교내 | 1,072(15.2) | 281(14.2) | 404(16.5) | 387(14.8) |
| | 지역사회 | 2,006(28.5) | 318(16.1) | 778(31.8) | 911(34.8) |
| | 전체 | 2,565(36.5) | 474(24.0) | 997(40.8) | 1,094(41.9) |
| 기부 경험자 | 현금 | 3,179(45.2) | 1,196(60.4) | 877(35.9) | 1,106(42.3) |
| | 현물/포인트 | 1,616(23.1) | 686(34.7) | 453(18.6) | 477(18.3) |
| | 전체 | 3,650(51.8) | 1,346(68.0) | 1,039(42.5) | 1,264(48.2) |

기부활동의 경우는 현금기부는 전체의 45.2%가 경험이 있었고 현물이나 포인트 기부는 그보다 적어 23.1%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기부경험은 51.8%로 나타났다. 그런데 기부는 초등학생이 가장 경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에서 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활동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금기부의 경우 초등학생은 60.4%가, 중학생은 35.9%, 고등학생은 42.3%가 경험했고, 현물/포인트 기부의 경우는 초등학생이 34.7%, 중학생이 18.6%, 고등학생이 18.3%가 경험했으며, 전체 기부 경험에 있어서는 초등학생이 1,346명 68.0%, 중학생이 1,039명 42.5%, 고등학생이 1,264명 4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주제인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참여의 설명요인을 찾는 분석결과는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표 2의 자원봉사 참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학년이 높을수록 $p<.001$수준에서 자원봉사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수준과 종교의 유무는 유의미한 설명요인이 되지 못했다. 그러한 결과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도 거의 유사하게 보이는데, 중학생 및 고등학생과 달리 초등학생은 남녀의 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p<.05$수준에서만 유의미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와 달리 고등학생은 경제수준이 $p<.05$수준에서 자원봉사와 정(+)적 관계를 가졌다.

자원봉사에서 개인동기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에서 이기적 동기 중 이득요인인 도움시 즐거움이 $p<.01$수준에서 유의미한 요인이었고, 손실요인인 비용이 $p<.05$수준에서 자원봉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위의 칭찬이나 시간손실, 죄책감이나 주위비난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타적 동기인 감정이입은 유의미한 설명요인이 아니었으나 개인규범은 $p<.01$수준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세 학령별로 그 영향력을 살펴보면 도움시 즐거움은 특히 초등학생에서 $p<.01$수준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는 반면 이타적 동기인 감정이입과 규범적 동기인 개인규범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고등학생에서 $p<.05$수준으로 유의미하여 학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표 2

**자원봉사활동 참여무유(1회이상참여=1)의 원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 | | 전체 | | 초 | | 중 | | 고 | |
|---|---|---|---|---|---|---|---|---|---|
| | | B | Exp(B) | B | Exp(B) | B | Exp(B) | B | Exp(B) |
| 사회인구학적특성 | 남성 | -.298*** | .743 | -.280* | .756 | -.397*** | .673 | -.325*** | .722 |
| | 학년 | .140*** | 1.150 | .326*** | 1.385 | .471*** | 1.602 | -.383*** | .681 |
| | 경제수준 | .037 | 1.038 | .006 | 1.006 | .031 | 1.031 | .095* | 1.100 |
| | 종교무유 | .034 | 1.034 | -.016 | .984 | .094 | 1.098 | .032 | 1.033 |
| 개인동기요인 | 주위칭찬 | -.062 | .940 | -.058 | .944 | -.001 | .999 | -.081 | .922 |
| | 즐거움 | .100** | 1.105 | .259** | 1.295 | .021 | 1.021 | .170* | 1.185 |
| | 시간손실 | .011 | 1.011 | -.080 | .923 | .060 | 1.062 | .002 | 1.002 |
| | 비용 | -.060* | .941 | -.041 | .960 | -.093 | .911 | -.028 | .973 |
| | 죄책감 | .021 | 1.021 | .080 | 1.083 | -.001 | .999 | -.030 | .970 |
| | 주위비난 | .011 | 1.011 | -.066 | .936 | .043 | 1.044 | -.008 | .992 |
| | 감정이입 | .007 | 1.007 | .023 | 1.023 | -.116 | .890 | .166* | 1.181 |
| | 개인규범 | .125** | 1.133 | .057 | 1.059 | .100 | 1.105 | .157* | 1.170 |
| 사회자본요인 | 도움조직사회자본 | .211*** | 1.235 | .240*** | 1.271 | .200*** | 1.221 | .230*** | 1.259 |
| 상황기회요인 | 주변인인지 | .008 | 1.008 | .079 | 1.083 | -.011 | .989 | .002 | 1.002 |
| | 수혜자신뢰 | .064* | 1.066 | .061 | 1.063 | .086 | 1.090 | .077 | 1.080 |
| | 기회인지 | .126*** | 1.134 | .218*** | 1.244 | .155** | 1.168 | .004 | 1.004 |
| -2Log우도 | | 8,461.262 | | 1,920.302 | | 3,073.115 | | 3,220.608 | |
| Nagelkerke R제곱 | | .106 | | .136 | | .093 | | .130 | |

* $p$<.05, ** $p$<.01, *** $p$<.001

사회자본요인인 도움조직사회자본은 전체 대상의 경우에서 $p$<.001수준에서 다른 요인들보다도 자원봉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의 경우에서도 $p$<.001수준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상황기회요인의 경우는 전체 대상에서 주변인 인지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수혜자의 신뢰가 높을 때 $p<.05$수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 외 도움기회가 많을 때 $p<.001$수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학령별로는 주변인 인지와 수혜자 신뢰가 모두 중요하지 않았고 도움기회는 초등학생의 경우 $p<.001$수준에서 중요했지만 중학생의 경우는 $p<.01$수준에서 유의미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유의미하지 않아 기회요인은 대체로 초등학생과 같이 낮은 학령에서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표 3의 기부활동 참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분석결과를 보면, 전체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그리고 자원봉사의 경우와는 반대로 학년이 낮을수록 $p<.001$수준에서 기부를 더 많이 하였다. 그리고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p<.001$수준에서, 종교를 갖는 청소년이 $p<.01$수준에서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도 거의 유사하지만 다소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에서는 남녀의 차이나 학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경제수준과 종교가 유의미했던 반면, 중학생의 경우는 남녀 차이, 학년, 그리고 경제수준이 유의미했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남녀의 차이와 더불어 학년이 적을수록 기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활동에서 개인동기요인을 살펴보면 전체 대상자의 경우 이기적 동기인 도움시 즐거움이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요인이었고 주위의 비난이 $p<.05$수준에서 유의미한 요인이었으며, 주위의 칭찬이나 그 외 손실요인은 유의미한 요인은 아니었다. 이타적 동기인 감정이입의 경우 $p<.01$수준에서 유의미했고, 개인규범은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요인임을 제시했다. 세 학령별로 그 영향력을 살펴보면 도움시 즐거움은 초등학생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에서 $p<.01$수준에서 유의미했다. 반면 이타적 동기인 감정이입과 규범적 동기인 개인규범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에서 유의미했고 고등학생의 경우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아 차이를 보였으며 자원봉사의 경우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그 외 초등학생의 경우 손실요인인 주위의 비난이 부(-)적으로 그리고 예상과 달리 시간손실이 정(+)적으로 유의미했다. 중학생의 경우는 비용이 부(-)적으로, 고등학생은 죄책감이 정(+)적으로 다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표 3

**기부활동 참여무유(1회이상참여=1)의 원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 | | 전체 | | 초 | | 중 | | 고 | |
|---|---|---|---|---|---|---|---|---|---|
| | | B | Exp(B) | B | Exp(B) | B | Exp(B) | B | Exp(B) |
| 사회인구학적특성 | 남성 | -.468*** | .626 | -.195 | .822 | -.395*** | .674 | -.752*** | .471 |
| | 학년 | -.125*** | .882 | -.008 | .992 | -.352*** | .703 | -.304*** | .738 |
| | 경제수준 | .102*** | 1.108 | .121* | 1.129 | .172*** | 1.188 | .027 | 1.027 |
| | 종교무유 | .138** | 1.148 | .329** | 1.390 | .004 | 1.004 | .124 | 1.132 |
| 개인동기요인 | 주위칭찬 | -.041 | .960 | -.063 | .939 | -.085 | .919 | -.042 | .958 |
| | 즐거움 | .161*** | 1.175 | .039 | 1.040 | .168** | 1.183 | .213** | 1.237 |
| | 시간손실 | .019 | 1.019 | .123* | 1.131 | .031 | 1.031 | -.050 | .952 |
| | 비용 | -.036 | .964 | -.028 | .973 | -.101* | .903 | .009 | 1.009 |
| | 죄책감 | .043 | 1.044 | -.033 | .967 | .062 | 1.064 | .128* | 1.137 |
| | 주위비난 | -.075* | .928 | -.148** | .862 | -.043 | .958 | -.011 | .989 |
| | 감정이입 | .113** | 1.119 | .152* | 1.164 | .139* | 1.149 | .028 | 1.028 |
| | 개인규범 | .172*** | 1.188 | .275*** | 1.317 | .181* | 1.198 | .133 | 1.142 |
| 사회자본요인 | 도움조직사회자본 | .151*** | 1.163 | .228*** | 1.256 | .103*** | 1.108 | .142*** | 1.153 |
| 상황기회요인 | 주변인인지 | -.086** | .917 | -.149** | .862 | -.117* | .890 | -.026 | .974 |
| | 수혜자신뢰 | .082** | 1.085 | .171** | 1.186 | -.017 | .983 | .059 | 1.061 |
| | 기회인지 | .063* | 1.065 | .119* | 1.126 | .096 | 1.100 | .000 | 1.000 |
| -2Log우도 | | 8,818.933 | | 2,202.488 | | 3,052.737 | | 3,307.574 | |
| Nagelkerke R제곱 | | .129 | | .132 | | .119 | | .122 | |

* $p$<.05, ** $p$<.01, *** $p$<.001

사회자본요인인 도움조직사회자본은 앞의 자원봉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대상의 경우에서 $p$<.001수준에서, 아울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세 학령에서 모두 $p$<.001수준에서 기부참여에 매우 높은 영향력을 갖는 요인이었다.

상황기회요인의 경우 전체 대상에서 주위에 돕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p$<.01

수준에서, 수혜자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p<.01$수준에서 기부에 참여하고, 그 외 도움기회가 많을 때 $p<.05$수준에서 기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학령별로는 이와 같은 결과가 초등학생에게서 나타나 세 요인 모두 초등학생에게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생의 경우는 주변인 인지만이 $p<.05$수준에서 유의미했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상황기회요인들이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Ⅴ. 결 론

이 연구는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연구가 적었던 청소년 도움행동의 원인을 대표적 도움행동이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두 가지에 초점을 두고 비교하며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의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세 학령층 별로 그 원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도움행동의 원인들로 사회인구학적 요인, 개인동기요인, 사회자본요인 및 상황기회요인을 제시하고, 과연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차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는데, 자원봉사나 기부활동에 있어서 여러 요인들의 작용이 비슷한 부분도 있는 반면 다소 다른 부분도 있었고, 또한 주요 요인들의 영향력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제시했던 요인들 중에서 사회자본요인인 도움조직사회자본이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모두에 있어서 그리고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도움과 관련된 조직에 참여하고 일원이 되었을 때 자원봉사나 기부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한 그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 간에 친밀감과 상호성, 그리고 정체성을 형성할 때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소년 기부활동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제한된 형태의 프로그램에만 교육적 목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 봉사관련 동아리활동의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학교에서 다수의 청소년들은 동아리 형태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개별적인 형태로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봉사관련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나는 학교마다 봉사를 전문으로 하는 동아리를 많이 설치하여 전문 봉사활동 동아리를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 봉사활동 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일반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지금보다 봉사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독려하는 것이다.

둘째,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개인동기요인 역시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는데, 이기적 동기요인 중에서는 도움시 즐거움이, 그리고 이타적 동기인 감정이입과 개인규범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물론 개인동기요인은 초·중·고등학생별로 차이를 보였고,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따라서도 상이함을 제시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도움에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고, 타인을 생각하는 타자지향적 감성과 규범을 내재화할 때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및 청소년 시설단체에서 실시하는 관련 교육을 통해서 도움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내면화하는 것이 사회공동체를 위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의 경우 초등학생에서는 도움시 즐거움이, 고등학생에서는 감정이입과 개인규범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학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기부활동의 경우는 그와 상반되게 초등학생에서는 감정이입과 개인규범이, 그리고 고등학생에서는 도움시 즐거움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어, 자원봉사와 기부, 그리고 학령별로 그 전략이 차등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상황기회요인 또한 중요한 설명요인이었는데, 자원봉사와 기부활동 모두에서 중요했지만 기부에 있어서는 돕는 누군가가 주변에 있는지 그리고 돕고자 하는 상대가 누구인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했고 자원봉사에서는 그 외 접근성이나 편리성 등의 기회요인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층별로는 자원봉사와 기부 모두에서 중고등학생보다는 초등학생에게서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활동대상에 대한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울러 자원봉사의 경우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전문 코디네이터를 두는 등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개선방안들을 통해 도움행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공동체성을 강화시켜 현재와 미래사회의 성숙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철희 (2003). 자선적 기부행동 및 자원봉사 참여 행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2), 161-205.

강철희, 김유나 (2003). 온라인 기부에 관한 연구: 기부행동과 기부노력에 대한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2**(1), 123-164.

강철희, 황지민, 오양래 (2015). 사회자본과 나눔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신뢰, 호혜, 규범의 영향력 분석. **사회복지정책, 42**(2), 1-32.

강현철 (2015). **청소년 나눔활동 표본설계보고서.** 미출판 원고.

김성경 (2007). 우리나라 자원봉사자의 적극적 자원봉사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21,** 167-186.

김성경 (2009). 사회적 자본 요인 및 자원봉사활동 요인이 평균이상 자원봉사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1**(3), 313-337.

김주원, 김용준 (2008). 자선단체기부자의 기부동기와 기부행동에 대한 실증연구. **경영학연구, 37**(3), 629-658.

김현진, 이민창 (2012). 자원봉사 지속의지 영향 요인 분석. **지방정부연구, 16**(3), 249-272.

송민경, 유현미 (2013).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욕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0**(7), 175-198.

원미순, 박혜숙 (2010).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3), 225-245.

유재연, 김창우, 김진미 (2015). 서울시민의 기부행동에 대한 설명요인 탐색: 다층모형을 통한 개인과 지역요인 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7,** 213-245.

이경상, 최항섭, 그레이스정 (2013).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13-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승미, 이경님 (2008). 남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12.

이용관 (2015). 누가 자원봉사를 더 많이 하는가?. **보건사회연구, 35**(1), 275-298.

이창식, 송국범 (2013). 청소년의 기부와 관련 변인 연구. **Journal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12), 725-734.

전신현 (1998). 여성의 감정이입과 남을 돕는 행동. **여성연구논총, 13,** 67-94.

전신현 (2011). 온라인 도움행동의 원인에 관한 경험연구. **정보화정책, 18**(1), 55-72.

전신현 (2015). 대학생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의 도움행동 원인 비교. **한국청소년연구, 26**(1), 195-215.

주성수 (2014).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의 불평등 비교분석. **시민사회와 NGO, 12**(2), 261-287.

홍성모, 황진수, 류지성 (2011). 사회자본의 지역사회참여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9,** 291-319.

홍은진 (2005). 기부참여와 기부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7**(3), 123-152.

Batson, C. D., Duncan, B. D., Ackerman, P., Buckley, T., & Birch, K. (1981). Is empathic emotion a source of altruistic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40*, 290-302.

Brown, E., & Ferris, J. M. (2007). Social capital and philanthrophy: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capital on individual giving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36*(1), 85-99.

Dovidio, J. F. (1984). Helping behavior and altruism: An empirical and conceptual overview.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7, pp. 361-427). New York: Academic Press.

Dovidio, J. F., Piliavin, J. A., Gaertner, S. L., Schroeder, D. A., & Clark, R. D. (1991). The arousal: Cost-reward model and the process of intervention. In M. S. Clark (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2. Prosocial Behavior*. Newbury Park, CA:Sage.

Dovidio, J. f., & Penner, L. A. (2001). Helping and altruism. In G. Fletcher, & M. S. Clark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2, Interpersonal Processes*. Oxford UK: Blackwell.

Dovidio, J. H., Piliavin, J. A., Schroeder, D. A., & Penner. L. A. (2006). *The social psychology of prosocial behavior.*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Drollinger, T. L., & Johnson, D. P. (1995). Lifecycle, financial and attitudin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donors. *Proceedings of American Counsel on Consumer Interests, Washington D.C.,* 95-105.

Eagly, A. H., & Crowley, M. (1986). Gender and help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social psychologic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100*, 283-308.

Eckstein, S. (2001). Community as gift-giving: Collectivist roots of volunteerism.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 829-851.

Einolf, C. (2011). Gender differences in the correlates of volunteering and charitable giv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40*(6), 1092-1112.

Eisenberg, N., & R. A. Fabes. (1991). Prosocial behavior and empathy: A multimethod developmental perspective. In M. S. Clark (Ed.), *Prosocial Behavior* (pp. 34-61).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

Eisenberg, N., & Miller, P. A. (1987). The relation of empathy to prosocial and related behavior. *Psychological Bulletin, 101*, 91-119.

Hamilton, S. F., & Fenzel, L. M. (1988). The impact of volunteer experience on adolescent social development: Evidence of program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1), 65-80.

Latane, B., & Darley, J. M. (1968). Group inhibition of bystander intervention in emergenc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215-221.

Lee, L., Piliavin, J. A., & Call, V. R. (1999). Giving money, time, and bloo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2*, 276-290.

Midlarsky, E., & Kahana, E. (1994). *Altruism in Later Life*. Thousand Oak, CA: Sage.

Musick, M. A., & Wilson, J. (2008). *Volunteers: A social profile*.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Nenga, S. K. (2012). Not the community, but a community: Transforming youth into citizens through volunteer work. *Journal of Youth Studies, 15*(8), 1063-1077.

Penner, L. A., Dovidio, J. F., Piliavin, J. A., & Schroeder, D. A. (2005). Prosocial behavior: Multilevel perspectiv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 365-392.

Piliavin, J. A., & Callero, P. (1991). *Giving Blood: The development of Altruistic Identity.*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iliavin, J. A., & Charng, H. W. (1990). Altruism: A review of recent theory and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16*, 27-65.

Piliavin, J. A., Dovidio, J. F., Gaertner, S. L., & Clark, R. D. (1981). *Emergency Intervention*. New York: Academic Press.

Piliavin, J. A., & Libby, D. (1986). Perceived social norms, personal norms and blood donation. *Humbolt Journal of Social Relations, 13*, 159-194.

Piliavin, J. A., Callero, P. L., & Grube, J. E. (2002). Role as resource for action in public service. *Journal of Social Issues, 58*, 469-486.

Putnam, R. D. (2002).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the American community.* New York: Touchstone Books.

Regnerus, M. D., Smith, C., & Sikkink, D. (1998). Who gives to the poor? The influence of religious tradition and political location on the personal generosity of americans toward the poor.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3), 481-493.

Sargeant, A. (1999). Charitable giving: Toward a model of donor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Management, 15*, 215-238.

Schroeder, D. A., JDovidio, J. F., Sibicky, M. E., Mathews, L. L., & Allen, J. L. (1988). Empathy and helping behavior: Egoism or altru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4*, 333-353.

Schwartz, S. H. (1977). Normative influences on altruism.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10, pp. 221-279). New York: Academic Press.

Smith, D. (1994). Determinants of voluntary association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3*, 243-263.

Wilson, J.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15-240.

Wilson, J., & Musick, M. (1997).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694-713.

# ABSTRACT

## Explanatory factors in volunteering and domination as forms of helping behaviors amongs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Jun, Shinhyun* · Lee, Kyeong-Sang**

This study explores explanatory factors in helping behaviors amongst youth, and in doing so, applied socio-demographic, individual motivation, social capital, and situational opportunity factors to both volunteering and domination behaviors. This study also examines how the effects of the above are different amongs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Results from data taken from 7,052 students nationwide, show that social capital levels in affiliated organizations are the most powerful factor in explaining both volunteering and domination amongst all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individual motivation factors, it i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helping behaviors, such as egoistic factors, empathy, and individual norms. However, there were differences across groups, in that pleasure derived from helping behaviors were importa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volunteering activities, whilst empathy and individual norms were important in high school students' volunteering. In contrasts, it was found that pleasure derived from helping behaviors were important in high school students' domination, while empathy and individual norms were importa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domination. In terms of

* First Author,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Department of Youth Counseling Studies, Professor
** Corresponding Author,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lks1428@nypi.re.kr

socio-demographic factors, it was shown that males exhibited higher levels in both volunteer and domination than females. It was also shown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exhibited higher levels in domination, while high school students exhibited higher levels in volunteering. Economic level and religion had significant influences in domination. In terms of situational opportunity factors, the by-stander effect and recipient characteristics are important in domination, while opportunity factors such as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are important in volunteering.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effects of these factors are different across the three groups, in that they are more significant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an high school students in terms of both volunteering and domination. Based on these above mentioned empirical results, a number of possibl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 Words: youth, helping behavior, volunteer, domination, social capital

투고일: 2016. 6. 8, 심사일: 2016. 6. 23, 심사완료일: 2016. 7. 11